

# 학교생활 속 이야기 사진·포스터·동시로

## 전북교육청, 너도나도 공모전 개최... 오늘부터 작품 접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너도나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너도나도 공모전은 전복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이 자유롭게 제작한 특색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포스터·동시 3개 분야로,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 된다. 참가대상에서 사진은 교직원 포스터는 중·고등학생, 동시는 초등학생이

다.

응모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3일 까지로, 전복지역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전복교육소식 누리집(<http://news.je.go.kr/>)에서 공모전을 클릭 신청하기 게시판에 출품자 인적사항과 작품 제목·작품 소개 등을 작성한 뒤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1인당 1편만 응모 가능하며, 2작품

이상 등록사에는 선 등록한 1작품만 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11월 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각 분야별로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8점 등 총 42점을 선별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수상작은 전복교육소식 누리집과 블로그에 게재되고, 도교육청 홍보 자료로도 활용된다.

출품규격이나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63-239-3173)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크게 높여줄 대형강의실과 북카페가 지난 12일 오후 준공식을 가졌다.

##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

### 전북대 사회대 대형강의실 3곳·휴식공간 북카페 준공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크게 높여줄 대형강의실과 북카페가 지난 12일 오후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부보 보직자들과 윤명숙 사회대 학장 및 사회대 학생회장 등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테이프 커팅식 등을 통해 준공을 축하했다.

학생 수업의 질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이

번 조성공사는 기존 소형 강의실 6개를 통합해 대형 강의실 3실을 구축, 대면 수업의 질 향상을 모색했다.

또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독서와 학습,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도 조성해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혁신지원사업단 예산 등 총 3억 원이 투입돼 내부 기자재도 제대로 갖추게 되어 이 공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인재 양

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명숙 사회대학장은 “사회대 학생들의 대면 수업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형 강의실과 북카페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제상을 비꾸는 창의적 생각은 건강한 휴식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이 공간을 통해 사회과학도들의 만남 허심탄회한 소통이 함께할 때 일본 머스크, 봉준호와 같은 창의인재가 우리대학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군산대 유학생 제라도 교수

### 필리핀 주립대 총장 취임



군산대학교 유학생(박사과정)이 필리핀 대학 총장으로 취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필리핀 북부 일로일로 주립 대학교(Norham Iloilo University) 신임 총장 바비 제라도 교수(Prof. Bobby Gerard)이다.

바비 제라도 교수는 2007년 군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이재만 교수의 지도 하에 통신 및 무선통신 공학전공 분산 시스템(정보지식공학) 분야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바비 제라도 교수는 근면과 헌신을 바탕으로 교육자 및 연구원 리더로서 27년을 봉사해왔다. 그는 웨스트 비샤아스 주립 대학교 부총장직을 역임했고, 정보통신기술학과장, 기획처장 및 국제교류원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또한 리더로서 대학의 인프라 개발 및 연계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세계화를 지원했으며, 웨스트비샤아스 대학에서 e-러닝 시스템 구현과 주요 컴퓨터화 개발을 선도했다.

제라도 교수는 “한국에서의 정보기술교육을 바탕으로 학교의 e-러닝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수의 교수 및 학습활동을 향상시키겠다”고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권순·남현봉 기자



(사진 왼쪽부터)이승아, 이채린씨.

## 전북대 GTEP 사업단, 모의 무역경연 ‘우수’

### 대학생 모의 무역위원회 경연회 중기중앙회 회장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2021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중기기업중앙회 회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GTEP사업단 이채린 학생을 비롯해 김서현, 김은지, 김준혁, 김지희 작진식, 이슬(이상 무역학과), 이승아(경제학부), 이준호(중어중문학과)씨는 이 대회에서 베트남 합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 관점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대학

(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경연대회’는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제로 사전 조사부터 판정까지 무역구제 전 과정을 경연하는 대회다.

이승아씨는 “사업단 요원 모두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사업단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쌓아 무역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TEP사업단은 무역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와 전국 2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실현할 것”

### 차상철 대표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개선·선행교육 금지 필요”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현재 전북도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체 유치원 원아는 약 2만명인데 이 중 62%인 약 1만 2400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도내 사립유치원 학부모



모는 원아 1인당 월 평균 약 12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78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차상철 대표는 “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커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이

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차상철 대표는 “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커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적극적 교육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제로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선행교육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 대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 “지역아동센터 중심 돌봄협의체 상설화”

### 황호진 전 부교육감, 교육현장 정책간담회서 제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상판지역 아동센터에서 제10차 교육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전복협의회 최영순 부회장과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최영순 부회장은 “상판면만 보더라도 상판초등학교의 학교돌봄과 상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아이돌봄, 기차길도서관 방과후프로그램 등 5개의 돌봄시설이 실제적인 돌봄수요 조사 없이 설치·운영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



판이다”며, “은종 일돌봄체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 지원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제한 조정 ▲돌봄수요 실태조사 실시 ▲전복교육청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 제정 등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광역

시·도 17곳 중 전남과 전북만 광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광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상설화해 돌봄기관 간 의견조정과 돌봄수급방안 등의 중요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내 시군 일반자치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며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286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26개소, 전복교육청 초등돌봄교실은 416학교 780교실이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 안돼”

### 전복교사노조,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치환 등 요구

전복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씨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많은 초등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이 돌봄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 돌봄복무관리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이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아닌 교사의 업무인 바와 같이 같은 논리로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할 ‘행정사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더 이상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계약서상 담당업무에 ‘돌봄전담 업무 및

돌봄교실 관리’가 있으므로 돌봄전담사가 돌봄행정사무를 전담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상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채용 역시 ‘행정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성이 담당 사업부서가 되어야 한다. 즉, 돌봄전담사나 돌봄대체전담사를 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던 돌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돌봄전담사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 파업과 관련해 정부 등에 ▲학교장(유치원 원장)은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 계획 중단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복무 관리는 교감(원감)이 하도록 사무분장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 ▲은종일돌봄특별법 통과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분 좋은 상상’

###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23일 ‘발명어울마당’ 개최 오늘까지 신청... 대상은 초 5학년부턴 중학생까지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은 오는 23일 교육연수관 2층에서 2021 발명어울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분 좋은 상상! 발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발명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발명활동을 체험하면서, 발명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발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마당·이벤트마당·체험마당 등이다.

먼저 오전 공연마당에서는 미디어레이저쇼와 신비한 과학미술포를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과학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관람 가능하다.

또 이벤트마당은 과학퀴즈 골든벨로 현장 및 온라인 참가자들이 총 50분간

의 과학퀴즈를 풀고, 성적에 따라 상품 및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해서 선정된 학생들은 행사 당일 현장 참여 및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오후 체험마당에서는 골드버그 챌린지·오코코드로 보물찾기·코딩으로 조정하는 EV3 추구로봇·VR로 옛보는 메타버스 세상·드론 인형뽑기 등 12개 부스가 운영된다.

발명어울마당 신청 및 참여 방법 과학교육원 홈페이지(<http://jacr.kr/>)에 접속, 예약-발명어울마당 예약-해당 프로그램 신청하기 순으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4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초등5학년 5학년부턴 중학생까지다.

신청순으로 참가자를 선정하며, 선정자 명단은 과학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안내한다.

과학교육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명에 대한 흥미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로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도 공립유·초·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8.1대

전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원 임용시험의 최종 원서접수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http://www.je.go.kr))를 통해 발표했다. 13일 밝혔다.

이는 9월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다.

선발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28명 모집에 668명 지원으로 약 23.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교대생들이 응시하는 초등교사는 61명 모집에 130명 지원으로 약 2.1대 1,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은 9명 모집에 35명 지원해 3.8대 1, 초등은 13명 모집에 52명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제간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http://www.je.go.kr))의 알림마당, 시험/채용 정보에서 초등임용시험 게시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